

한국 청년 블랙홀 캄보디아…더딘 수사에 속타는 가족들

광주 3명도 캄보디아 실종 신고

최근 경북 예천 출신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광주 지역에서도 가족이 캄보디아에 납치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경찰은 올해 초부터 유사한 실종 신고를 연달아 접수하고도, “대사관 측에서 답을 안 해준다”며 수개월 동안 관련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광주에서 캄보디아 지역으로 출국 후 실종된 20대 3명에 대한 행방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살려주세요” “계좌번호 알려 달라”

전화·문자 후 수개월째 연락 두절

납치·감금에 하루하루 애타는데

실종자 소재 파악조차 안돼 답답

외교부에 신변 요청해도 묵묵부답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올해 1월 18일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줄테니까 엄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A씨 가족들은 지난 3월 6일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8월 20일에는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20대

B씨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직업이 없던 B씨는 지난 6월 26일 가족들에게 “일하러 가겠다”고 말한 후 태국으로 출국했으며, 이후 소식이 끊겼다.

B씨 가족들은 실종신고 접수 이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B씨 목소리로 추정되는 “살려주세요” 음성을 듣고 전화가 끊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의 마지막 통신 기록은 지난 8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확인됐다.

가족들은 B씨가 캄보디아로 갔던 사실을 몰랐으나, B씨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수영장 안전요원을 하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명의의 카드 사용이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달 광주북부경찰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된 20대 C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C씨는 지난 4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으며, C씨의 부모는 4개월여만에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개월째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경찰은 지나치게 태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은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재외국민 소재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것 말고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북부경찰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교부에 재외국민 신변 확인을 요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회신 받지 못하고 있어 수사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산경찰의 간부급 경찰관은 “일부 실종자

의 경우 단순 가출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꼭 범죄에 연루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광산경찰 관계자는 “대사관도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다 알고 있겠냐”며 “대사관측에서도 행적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다. 우선 사람을 찾아야 납치가 됐는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이후 감금을 당했다며 한국 공관에 들어온 신고는 33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건, 2022년 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경찰 “캄보디아 협조 원활하지 않아”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추진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대학생 사건처럼 사망 사례가 경찰에 접수된 게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한 범죄인은 147명이라고 밝혔다. 2021년 18명, 2022년 26명, 2023년 22명, 2024년 48명으로 급

증 추세다.

유 직무대행은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인력 파견 규모 논의 등이 필요해 코리안 데스크가 단기간에 설치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필리핀에 설치돼있는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대사관이 아닌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한다. 주권 문제로 얽혀있어 상대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와 협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크게 실용적 방안을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해서 (수사 공조 강화를) 요구하면 비협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학교 4곳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학생 대피…위험물 발견 안돼

하루 사이에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4곳에서 동시에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했다.

13일 광주남부·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부터 남구 주월동 금당중학교와 대광여자고등학교, 진월동의 동성고등학교, 북구 용봉동 경신여고 등 4곳에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각 학교 직원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학교 시설물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고, 10월 13일

터질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이후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학교 내·외부를 수색했으며,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신여고는 학생 전원을 조기 하교시켰으며, 금당중, 대광여고, 동성고는 학생들을 외부로 대피시킨 뒤 수색 종료 이후 수업을 재개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협박 메일이 발송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모기·해충 방역 13일 광주시 북구청 방역반원들이 용봉동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가을 모기 증가와 미국흰불나방 등 각종 해충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북구는 이번주까지 관내 어린이공원, 하천, 공공녹지 등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명주기자mjna@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추진과정 전면 조사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공탁서류 법인 인감 위조 의혹”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13일 성명

을 내고 “제3자 변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이 공탁 서류에 법인 인감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피고 기업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가짜 막도장을 찍어 인감까지 날조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다”며 “이는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제3자 변

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역지로 밀어붙였던 과정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전범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탁 서류에 인감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모던건설
MODERN

사무실

공 장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